

논에 벼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

임실군, 총 9억6500만원 투입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

임실군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벼 대신 타작물을 최소 1,000㎡이상 재배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임실군의 논 타작물 목표면적은 284ha로 9억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료는 1ha당 430만원, 일반작물, 꽃 겨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325만원, 휴경 28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수급관리가 필요한 4개 품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대상작물에서 제외된다. 군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논에 콩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발전환 농기계지원, 쌀농업 고정직불금지원 등 3개의 자체사업에 예산 2억861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에 콩 재배 농가에 콩 종자 및 멀칭비닐을 지원(단가 60만원/ha, 보조 50%, 자담 50%)하고, 논에 타작물 재

배농가에 경운기, 관리기, 콩수확기 등 농기계를 지원(단가 500만원/대, 보조 50%, 자담 50%)한다. 또한 올해 논에 벼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에 종전 벼 재배농지에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던 군비직불금을 고정직불금으로 전환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6월 28일까지 읍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신청서 1부와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 640-2683 또는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전국 최초 '첫 엄마애 간식비' 지원

남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월부터 가정 양육아동 600명에게 엄마애(에) 간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엄마애(에) 간식비는 남원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8개월 미만)에게 매월 1만원(년 12만원)을 간식비를 제공하는 것이며, 방식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가맹점(176개소)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간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이를 위해 남원시와 ㈜푸르미코리아(대표 홍영복)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남원시의 엄마애(에) 사업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줄여줌으로서 살기 좋은 남원 실현을 위해 지난해 기획되었으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



남원시가 가정 양육아동 600명에게 엄마애(에) 간식비를 지원한다

보장제도 협의 과정 중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원시가 저출산 대응에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남원실현을 위해 시책개발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마을방범 CCTV 설치 범위를 제로 도전

순창군이 마을방범 CCTV 설치를 지원해 범죄율 제로에 앞장서고 있다.

마을방범 CCTV 설치에 힘쓰는 군이 지난 2009년부터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해 현재까지 총 308개 마을 중 291개 마을이 설치(95%)되어 활용 중에 있다.

특히 농산물 절도사건은 현장 증거 수집이 어려워 피의자 신변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늘어나고 있는 CCTV로 인해 용의자 인상착의나 차량 번호, 동선을 확보하는 데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CCTV 설치가 오래되어 화면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고장이나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일제조사와 수시점검으로 사후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25일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진료비를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등록했다.

남원사랑 상품권은 화폐 대신사용 가능하며 본인 부담 진료비뿐만 아니라 장례비도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객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병원 사용료를 수납해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또한 지속적 사업 확대로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장난감 배달서비스를 집 앞까지 확대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집 앞까지 장난감 배달

순창군, 4월부터 시범서비스로 추진

순창군이 지난해 9월 먼 사무소까지 배달하던 장난감 배달서비스를 집 앞까지 확대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1월, 문화의집 1층을 리모델링하여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해 연 회원 300여명, 장난감 대여건수 6,600여건에 이르는 등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장난감을 사줘도 금방 싫증내는 아이들 특성상 개당 몇 만원씩하는 장난감을 수시로 사주는 것은 부모로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이에 개관 당시 한 달만에 130여 가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군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에 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4월부터 시범서비스로 집 앞

까지 배달하기로 한 것.

장난감 배달을 희망하는 회원은 홈페이지(www.scjoy.co.kr)를 통해 신청하면 집까지 배달해주며, 먼 사무소를 방문해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배달 일정은 인계·동계면(화요일), 적성·유등면(수요일), 금과·풍산면(목요일), 팔덕·구림면(금요일), 복흥·쌍치면(토요일) 순서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회원가입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대형 장난감 및 일반 장난감에 대해 홈페이지 신청만으로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4월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위키맘 등 장난감도서관 방문이 힘들었던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5개년 농촌발전방향 프로젝트 돌입

임실군이 '농업인에게 희망을, 지역에 활력을, 주민과 상생하는 농업농촌'을 위한 향후 5개년 농촌발전 길라잡이 프로젝트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최근 농업발전계획 최종보고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농업농촌발전을 주도할 희망과 활력, 상생이라는 3대 비전을 토대로 '돈버는 농업, 강한 농업인', '방방곡곡 놀거리·먹거리', '함께 행복한 농촌만들기' 등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또한 이들 프로젝트를 수행을 위한 9대 핵심전략으로 71개 목표 지표를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과 세부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라는 주제로 김형우 부군수를 비롯한 협력부서 직원, 각 분야의 민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농업 구현 방안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농발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북지사에서 임실군 현황 및 특성을 분석, 지역 농업·농촌의 성장기 비전, 목표, 부문별 추진계획 등 농업농촌의 기본 발전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우 부군수는 "이번 농업발전계획은 과거 하향식 계획 수립과는 달리 민과 관의 참여와 협치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려

순창군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제 100주년의 해를 맞아 25일 전북동부보훈지청과 공동으로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훈처의 협조로 진행하고 있다.

고(故) 임기서 애국지사는 임세목 의병장의 지휘 아래 호국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15년의 옥고를 치렀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우리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수 있는 것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사랑속속 손주 돌봄교실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직장일로 바쁜 자녀를 대신해 육아를 하고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손주돌봄교실은 오는 4월 1일, 4일, 8일, 11일(월,목) 오전10시에 운영하고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육아정보와 육아방법을 교육하고, 영유아의 발달단계 이해와 영양간식 만들기, 놀이법 등 육아에 꼭 필요한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4일간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신 육아정보를 습득해 자녀세대간의 육아방법에 따른 갈등도 해소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보건소(620-7955,7942)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안전 특별조사

남원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3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남원시 및 순창군 관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0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반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안전관련 전문가 3개조 9명으로 구성,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을 정밀 조사하게 되며,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물 처리시설에 대한 무허가 위험물취급 ▲위험물시설의 무단설치 변경사항 등이다.

또한, 주유소 관계자 등이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